

“미술도시 광주 만든다” 문화기관들 맞손

시립미술관 등 12개 기관 민·관협치회의 출범 2월 2회 정례모임...정책비전 창출·활성화 매진

광주 문화기관들이 '미술도시 광주' 조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광주시립미술관 1층 로비에서 광주미술문화를 선도하는 12개 기관·단체·협회·학계와 100여명의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미술도시 광주 민·관협치회의'를 출범했다.

이날 행사에는 시립미술관, 광주비엔날레, 광주문화재단, 미로아트센터, 소촌아트팩토리, 광주미협, 광주민미협, 광주박물관미술관협회, 건강한 미술생태를 위한 화랑모임, 전남대 예술대학,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광주미술관회 등 광주지역 미술인들이 모여 미술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미술도시 광주 민·관협치회의 발족은 지난 9일 준비 모임에 이어, 17일 1차

회의를 통해 미술도시 광주를 향한 민·관협치회의 발족과 상생 협약에 뜻을 모으면서 출발했다.

민·관협치회의는 매달 두 차례 정례모임을 통해 미술도시 광주를 위한 전략 수립과 사업 방안, 실행 계획을 세운 후 정책비전 창출과 활성화에 매진할 계획이다.

광주시립미술관은 미술도시 광주 정책을 추진하는 선도 기관으로서 미술과 함께 시민의 문화를 증진하는 정책 수립과 사업을 추진하는 구심점을 맡기로 했다.

광주비엔날레는 세계와 광주를 아우르는 시각문화 발원지로서 꾸준한 도약해 동시대 미술, 미학적 담론과 철학을 새롭게 제시하는 미술도시의 선봉자로서 역할을 할 것임을 약속하고, 광주미협은 2천500명 회원과 함께 미술인의 창작 활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23일 오전 시립미술관에서 열린 '미술도시광주 민관협치회의 출범식'에 참석한 김광진 광주 문화경제부시장과 12개 기관·단체·협회·학계 관계자들이 상생협약을 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문화재단은 예술가는 창작하면서 행복하고, 시민은 문화와 함께 행복한 광주를 위해 최선을 다하면서 타 장르와도 상생하기로 했다.

미로아트센터와 소촌아트팩토리는 미술로 지역과 함께 문화적 가치를 더하는 중심 역할을 할 것을 약속하고, 광주미협은 2천500명 회원과 함께 미술인의 창작 활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설 계획이다.

광주민미협은 민주인권평화미술을 통해 광주정신을 치유와 상생, 문화적 포용으로 펼쳐 가기로 했다.

광주박물관미술관협회는 전통과 미술문화를 선도해 국민의 문화와 예술 경험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상생, 건강한 미술생태계를 위한 화랑

모임은 미술시장을 즐겁게 확대시키면서 유망 작가 발굴 및 미술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전남대 예술대학과 조선대 미술체육대학은 세계로 진출하는 창의적인 예술인을 양성하고 작가 양성에 힘을 쏟을 계획이다.

광주미술관회는 시민의 미술 애호 저변 확대를 통해 풍요롭게 미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김광진 문화경제부시장은 "광주가 명실상부 미술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창작과 향유, 유통이 선순환하는 미술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며 "미술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문화도시를 만드는 일에 민·관·학이 함께 힘을 모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강 기자

전남,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전국 최다

21개 지구 선정...농경지 염해·자연재해 피해 예방 기대

올해 전남지역 국가·지방관리방조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보수가 이뤄진다.

전남도는 23일 "농림축산식품부 '2023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신규 착수 대상지로 총 27개 지구 중 21개 지구가 선정돼 전국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올해 선정된 신규 착수 대상지는 국가관리 3개 지구, 지방관리 18개 지구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노후 방조제의 제방, 배수갑문 및 부속시설을 미리 보수·보강해 홍수, 태풍, 해안침식 등 자연재해에 따른 시설물 붕괴와 파손을 예방하고 바다물 유입을 막아 농경지

를 보호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현재 추진 중인 6개 시·군 35개 지구와 올해 신규 선정된 21개 지구에 국비와 지방비 1천288억원을 들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신규 착수하는 21개 지구 중 국가관리방조제 3개 지구는 ▲영암 ▲보성 ▲신안 태천지구다. 지방관리방조제 18개 지구엔 ▲강진 장계2 ▲고흥 해내·송림·화도1·남성 ▲해남 목동·백포2 ▲신안 소동면·화랑·애미·저동·신촌1·일출·큰들2·봉도유호·소당두·전광2·소포가전이다.

신규 지구는 설계 착수 단계부터 전

남도와 시·군, 한국농어촌공사가 협력해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에 대응하고 지역 주민 의견을 수렴한 세부설계를 연내 완료하고 2024년 상반기 착공하도록 방침이다.

윤재광 농업정책과장은 "농업 재해 예방과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낙후 농업 기반시설 개선, 보수·보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 초기 마무리를 위해 국고예산 추가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1988년부터 2022년까지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개선 및 보수·보강이 필요한 방조제 986개 지구에 대해 1조2천375억원을 투입해 개보수사업을 추진했다. /김재경 기자

▶1면 '마한역사문화센터'서 계속

선포사에서 강기정 시장은 "광주는 신장동 유적을 비롯해 월계동 장고분 등 200여곳에 달하는 마한 유적이 있는 역사문화도시이고 고대 마

한은 지금의 광주를 만든 씨앗"이라며 "가장 오래된 현악기는 광주의 예술로 태어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 수레바퀴는 첨단 자동차 산업도시로, 화살촉은 광주를 양공의 메카로 만들었다"고 유치 당위성을 강조

한 바 있다. 그러면서 강 시장은 광주·전남의 마한유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데 마한역사문화권인 전남도에 공동 협력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월산근린공원 생태훼손지, 시민 휴식공간 탈바꿈

광주시, 국비 4억3천만원 들여 복원

광주남구 월산근린공원이 생태계 복원을 통해 시민 휴식공간으로 거듭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환경부 '생태계 복원사업'으로 추진한 월산근린공원(백운동 286-2번지 일대, 6천900㎡)의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사업을 완료했다.

주거지역과 밀접한 월산근린공원은 경차 등으로 훼손이 심해 생태복원이

시급한 지역으로 꼽혔다.

이에 광주시는 환경부가 공모한 '생태계 복원사업'을 신청, 국비 4억3천만원을 확보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심 속 소생태계 복원을 추진했다.

시는 이곳에 낙엽관목 13종 5천313그루, 상록관목 5종 1천612주 등을 심고 곤충호텔, 생태탐방로, 원두막 등 설치

해 시민들이 생태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했다.

송진남 기후환경정책과장은 "도심내 훼손·방치된 공간의 생태계를 복원해 시민이 자연을 즐기면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2013년 광산구 원당산 생태계 복원사업을 시작으로 총 9개 지역 2만8천㎡에 달하는 도심 공원의 생태환경을 정비했다. 총 사업비는 국비 85억원이 투입됐다. /박선강 기자

▶1면 '쌀 초과생산량'서 계속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 요건이 까다로운 재의 대신 새로운 관련 법안 추진을 예고했다.

신정훈 의원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쌀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들을 다시 낼 것"이라며 "식량자급을 법제화, 쌀 재배면적 관리 의무화 등으로 원래 민주당이 추진한 양곡관리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 거부권은 7년 전인 2016년 5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의 '상시 청문회' 개최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에 행사한 것이 마지막이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도민의 오랜 숙원인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시행에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당은 "윤석열 정부는 농업 재정 낭비라고 주장하는데 이는 '논 타작

물 재배지원사업 법제화'를 통해 쌀 재배 면적 감축과 쌀 과잉생산 해소를 이끌어 내 정부가 우려하는 바와 달리 과도한 예산 투입 없이 균형적인 쌀값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당은 "정부가 진정으로 농민의 삶과 민생을 위한다면 국회에서 통과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억지스러운 거부권이 아닌 전형적인 자제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인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 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의 650-2022

법원 검찰청 2차선도로변 급매빌딩

- 광주 동구 지산동(법원직선거리88미터)
- 대지146.1㎡ 3층건물(100%명도)
- 용도:법률사무실 용도 최적
- 급매:5억4,800만원
- *** 법원주변 금액별로 다양한 물건 보유중입니다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급히구합니다 = 조건맞으면 바로 계약합니다

상가빌딩, 상가주택, 모텔, 가든, 나대지
야영장, 창고부지, 물류센터부지 등등 찾고있습니다.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N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부실 채권 못 받은 돈 회수 전문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 각서 계약서, 입금내역, 각종 채권상당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할 수 있음

채무자 재산, 신용, 주거은행, 차량 등 파악 실거주지 파악, 법인회사부도시 회수 가능

연락두절 채무자 파악
개인 법인 신용조사 재산조사만 별도가능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원모집 신인·경력사원
영업팀 / 채권추심팀
▶지사오피스 상담▶

접차적 편의 법정차 준수 시간적 효율

호남지사 062-417-4731
(주)제이엠신용정보
채권추심 전문법인

